

전북교육청, 종합청렴도 '2등급' ... 최상위권 도약

청렴 전담조직 신설 · 정책 추진 '결실'

2018년 이후 7년만의 성과... 청렴 노력도 1등급으로 상승

갑질 근절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청렴함께학교 첫 도입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표가 전년대비 상승하면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특히 청렴노력도는 전년대비 두 단계나 상승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취약 지표로 꼽혔던 청렴제 간도는 3등급으로 상승, 내부 구성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올해 청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청렴 정책을 집중추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반부패·청렴 업무를 감사관실 내 청렴정책팀으로 일원화해, 정책 기획부터 실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전국 최고 수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기관장(고위직) 관심과 노력도 부문에서도 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무려 25점이나 높은 점수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권익위는 "기관장이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직접 참여하고,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 있는 리더십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청렴노력도 정량평가 전 항목 '100점'

청렴노력도 정량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고, 내부 패시픽 사례 공유·확산 부문 역시 만점을 기록했다.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 세부평가에서는 분석 수준이 체계적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조직 내부 청렴문화 확산 방식이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이행수위의 다양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내부제감도 13점 상승... '고질적 문제' 뚜렷한 개선

▲갑질 근절·공정성 강화... 제도 혁신 성과 가시화

전북교육청은 내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갑질심의위원회 신설, 안심 노무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대폭 강화해 왔다.

이와 함께 상호존중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청렴실천 다짐 릴레이, 청렴소식지 창간 갑질 예방 카카오톡 채널 운영, 참여형 청렴 공연 등 도민과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부패취약분야 책임관리제와 청렴해피콜, 특정감사 강화를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촘촘한

눈에 띄는 변화는 내부 직원이 느끼는 청렴제감도가 전년 대비 13점이나 상승한 점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내부제감도 하락이 두드러지자 조직 내부의 부패 인식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고위직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자 청렴추진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내부 부패 인식도는 개선되고 부패 경험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근절·공정성 강화... 제도 혁신 성과 가시화

전북교육청은 내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갑질심의위원회 신설, 안심 노무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대폭 강화해 왔다.

이와 함께 상호존중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청렴실천 다짐 릴레이, 청렴소식지 창간 갑질 예방 카카오톡 채널 운영, 참여형 청렴 공연 등 도민과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부패취약분야 책임관리제와 청렴해피콜, 특정감사 강화를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청렴함께학교' 첫 도입... 미래 세대까지 확산

올해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반부패 청렴 실천 모델인 '청렴함께학교'를 처음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래세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감사관 등 고위직이 부패취약분야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점 역시, 이번 종합청렴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종열 감사관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청렴 제감도를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 체계적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 미래세대 청렴문화 확산까지 연계해 종합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종합청렴도 상승은 전북교육 모든 구성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앞으로 더 높은 청렴제감도를 더욱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 RISE사업단은 문화관광 글로벌화 융복합 인력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이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이화동 교수(한국음악학과)와 함께 최근 한·중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국제교류 음악회를 중국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한·중 문화예술 교류 새 장 열었다

전북대 RISE사업단, 문화예술 박사 포럼 · 국제교류 음악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국제교류 무대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손정민)은 문화관광 글로벌화 융복합 인력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이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이화동 교수(한국음악학과)와 함께 최근 2025 한·중 대학 문화예술 박사 포럼과 한·중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국제교류 음악회를 중국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술 교류와 공연, 현장 체험을 결합한 실천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문화관광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RISE 사업의 취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열린 한·중 대학 문화예술 박사 포럼에는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박사 졸업생들과 중국 내 문화예술 분야 박사 연구자들이 참여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학술 교류와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예술의 현대적 활용, 문화관광과 예술의 융합, 국제 교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확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향후 공동 연구와 교류 확대 방안에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전북대와 중국 저장방직복합직업기술대학은 공식 협약을 통해 학생 교환과 공동 연구, 학술정보 교환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포럼과 연계해 열린 '한·중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국제교류 음악회'는 학술 교류를 예습로 확장하는 시간이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음악가들과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이서진 외 8명)이 참여해 산조합주와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한·중 우호의 밤, 화합과 공생의 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무대에서는 양국의 전통음악이 현대적 해석과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자와 예술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 형식은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국제교류가 단순한 행사 차원을 넘어 상호 이해와 공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재훈 기자

골든버저 명성 넘어 케냐까지... 'K-태권도'로 전북 가치 격상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 전북자치도 스포츠 외교 전선 활약 공연 넘어선 나눔도 '주목'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스포츠 외교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사진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U-21 챔피언십 개막식 무대에 오른 싸울아비.

식 시범 공연이었다. 이는 단순한 초청공연이 아니었다. 이번 무대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무주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챌린지 아프리카 초청사업'의 후속 성과이자, 케냐 태권도연맹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대표급' 공연이었다.

싸울아비는 현지에서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한 '한국문화주간' 행사의 메인 공연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태권도의 성지이자 국제 교류의 핵심 거점임을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싸울아비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공연을 넘어선 '나눔'의 실천에 있다. '세계태권도 U-21 챔피언십' 개막식을 마친 싸울아비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빈민가에 위치한 '와이타카 태권도 클럽'을 찾아 초·중·고 학생 80명과 함께 훈련하며 땀을 섞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나눔은 국내에서도 이어졌다. 귀국 직후 개최한 태권도학과 창작

공연 FINALE'의 수익금 전액을 자재복지재단에 기부하며, '글로벌 명성'을 지역사회의 기여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류두현 총장은 "2025년 싸울아비의 활동은 우리 태권도학과가 전북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며 "전주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과 호흡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스포츠 외교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24년 영국 최고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season 17)'에서 골든버저를 받으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싸울아비는, 올해 10월 스페인 최고 오디션 프로그램 '에스파냐 갓 탤런트(Got Talent Espana season 11)'에도 참가하여 압도적 퍼포먼스로 심사위원과 관객을 사로잡으며 괄목할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방영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화려한 활약과 빛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싸울아비 활동의 백미는 단연 아프리카 태권도 외교였다.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전북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으로 공식 위촉된 싸울아비는 지난 12월 동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U-21 챔피언십' 개막식 무대에 올라 5천여 세계관중을 압도했다. 이 대회는 세계태권도 유망주 선발의 권위 있는 글로벌 무대로, 대학 단일팀으로는 최초 개막

전국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률 1위

올여름 전력수급 집중관리기간 에너지 사용량 14.6% 절감
전북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례 제정 후 절감에 온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여름 전력수급 집중관리기간 동안 전국 1,00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에너지 절감률 1위를 달성했다.

전북교육청은 한국에너지공단 모니터링 결과 올해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0일간의 전력수급 집중관리기간 동안 총 173MWh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집중관리기간 사용량(202MWh)보다 28MWh(14.6%)를 절감한 것이다.

전력수급 집중관리기간은 여름철과 겨울철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정부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전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기간 동안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력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국 에너지 절감률 1위를 달성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9.2톤가량을 감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9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선도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에너지 절감장치 설치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강화 △전력 피크 제어 체계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까지 3만4186kWh의 전력을 절감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3.31%의 절감 성과를 달성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9.2톤가량을 감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신·증축 학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정밀 에너지 진단 및 개보수 확대 △현장 중심의 절감 실천 교육 강화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 학교 밖 청소년 '전북에듀페이' 신청하세요"

1월 5일부터 매월 신청기간 운영... 도내 9~18세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에도 전북에듀페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습을 중단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9~18세 청소년에게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취학의무 율에

면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9~15세(초·중학교 단계)는 월 5만원으로 최대 30만원, 16~18세(고등학교 단계)는 월 10만원으로 최대 60만원이며 전북에듀페이가 드레퉀카드 형태로 비우체로 지급된다. 2026년 1월 정기신청 기간은 5~13일이다. 2025년에 이어 계속 지원받으

자 하는 청소년은 소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등을 방문해 서류 제출 및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정기신청 기간과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정기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이며, 분기별 해당월(1.4.7.10월)에는 자격 확인을 위해 최초 신청기관에 방문 신청하고, 그 외에는 온

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학습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학업 중단을 증명하는 서류(제적증명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1종)를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군산·고창·부안 지역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김재훈 기자

올해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105억원 예산 절감

전북교육청, 총 616건 심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1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의 공사, 용역, 물품계약 총 616건의 3,246억 원의 예산을 심사한 결과다. /김재훈 기자

계약심사제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립학교 계약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계약심사 대상을 올해부터 시립학교까지 확대했다. /김재훈 기자